

“3·1 운동의 지향점은 자유 민주주의”

✎ 이강덕 대기자 | ⓒ 승인 2023.03.09 20:05

“3·1운동 기획.. 송진우, 최린, 최남선, 현상윤 선생 등 주도적 역할”



3월 9일 더 플랫폼(The Platform for Tomorrow)과 국가보훈처가 '3.1 운동과 자유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오피니언들의 모임인 더 플랫폼(이사장 송상현 · 회장 현병철)과 국가보훈처는 3월 9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 호텔에서 김황식 전 총리의 사회로 ‘3·1 운동과 자유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했던 3·1 운동 정신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미래에도 이어질 국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3·1 운동을 비롯한 자랑스런 애국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이며 그 깃발 아래 3·1의 자유정신과 가치는 확장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박 장관은 특히 “3·1 운동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을 추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탐사”라면서 “고하 송진우 선생은 3·1 운동 기획 연출자의 한 분이며 선각자인 그의 삶에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학문적 열정과 깨달음의 환희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세미나에서 3·1 운동과 자유 민주주의의 연관 관계를 발표한 월남시민문화연구소 김명구 소장은 일제 경찰의 수사자료와 당시 참여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3·1 운동의 기획과 전개과정에서 중앙학교 측의 송진우, 최린, 최남선, 현상윤 선생 등 4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들의 결정적 기여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3·1 운동은 단순히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제와 이념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을 확연히 드러냈다”면서 “3·1 운동의 지향점이 자유 민주주의였다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3·1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3·1 운동의 정신을 주제로 발표한 성신여대 김용직 교수는 “강력한 일본의 탄압과 교란책으로 인해 1919년과 그 직후에, 단기적인 독립의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1919년 한국의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민주공화제 달성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김항식 전 총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3.1운동에 기반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면면히 이어져온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도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만큼,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하나의 굳건한 자산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대기자

goodtvnews@goodtv.co.kr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